



소련TV는 每週 定期的으로 自然環境啓導放映한다고

소련聯邦에는 현재 6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는 85년판 UN자료(IUCN이 一定한 基準에서 定한것)에 의한 數字이다. 지난 12월 6~7양일 국사편찬위원회 주최 제14회 한국사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3세인 미하엘朴씨(71·모스크바大교수·소련 아카데미회원)과 柳學龜씨(65·모스크바大교수·日帝學兵出身)에 의하면 소련에서는 週1회 TV에서 自然保護·環境教育프로가 定期的으로 방송되고 자연보호·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전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한다.

한편 본회文莊寅부회장은 두분의 재소교포학자와 만나 소련의 국립공원등 자연공원관리실태등을 정취하는 한편 국립공원에 관한 자료교환을 주선해주도록 부탁했는데 두분은 쾌히 승낙했었다.

KBS1 TV 全國一周「프로」保健·自然 保護 啓導役割도 한몫

지난 10월3일 아침에 방영되는 KBS-1TV 全國一周 慶南咸陽편에서는 智異山의 山작약, 황기캐는 사람을 등장시켜 생태계파괴를 찬양, 묵인하는 인상이 짙었다. 葉草와 자연산松茸, 자연산 표고버섯을 캐는 광경을 보이고 다음날인 10월4일에는 智異山 天王峰(1,915m)에서 石茸따는 광경을 보이면서 藥材와 고급요리로 팔린다고 은근한 선전까지..... 다행히 이날 「리포터」는 연간20만명이 넘는 행락객들이 수용능력도 없는곳에서 아무곳에서나 캠핑하는 통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民泊시설이라도 확충되길 바랐고, 進行者도 자연보호를 강조하는 장면은 구각을 벗은듯 감명이 깊었다.

어느해 여름 金海편에선 세계 예방의학에서도 肝지스토마虫 汚染率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 洛東江下流에서 淡水魚를 生食하는 장면을 나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옛날 나라님께 進上운운하고 방영하면서 한술더떠 리포터도 그것을 맛보는 장면이 나와 아연실색케 했는데 TV관계자의 팔목할 계도자세 변화에 拍手를 보낸다.(香)

雉岳山岳會

'89히말라야 알룽강 國內 처음등반

朴淳鳥 원정대장/MBC 아침을 달린다서

11월 8일 아침 8시 37분부터 8분동안 MBC-TV 「아침을 달린다」 프로(진행 車仁泰)는 지난 8월 4일 발대식을 마치고 江原日報와 原州 MBC 共同후원으로 11명의 대원들과 함께 8월 16일 높이 세계 5위인 히말라야 알룽강峰(8,505m)으로 떠났다가 국내 산악인으로는 최초의 등반기록을 세우고 77일만에 돌아온 朴淳鳥씨(44·大山聯雉岳山岳회창·江原日報原州取材部長·本會會員)의 등반성공 기록을 소개. 동프로는 카트만두(네팔首都)의 유서깊은 文化財와 寺院들, 그리고 네팔의 장터와 음식물, 民俗 등을 골고루 비춰주어 관광문화 소개와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기록프로였다는 評.

파라과이 TV취재팀 지리산촬영

파라과이 채널9TV방송국 보도국차장 Benjamin Fernandez Bogado 기자('85국제방송인대회 서울대상수상)와 Roberto Acosta 촬영기자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분야에서 실상을 취재 동국에 방영코자 지난 11월5~6일에 걸쳐 지리산국립공원 일대를 취재해갔다.

Benjamin Bogado기자는 지난 '85년 국제방송인 대회에서 서울대상을 수상한바 있다.